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 ‘순천 방문의 해’ 설 연휴 관광객 작년 비 42% 증가

### 주요 관광지 11만1천여 명 방문



문화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순천 시가 급년 설 연휴기간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에 11만1천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42%가 증가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관광지별로는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포함) 58044명, 낙안읍성 30876명, 드라마촬영장 14083명, 송광사 3586명, 선암사 3209명이 방문하는 등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순천의 대표 생태관광지인 국가정원 등에서 즐거운 연휴를 보냈다.

특히, 순천시에서는 설 연휴기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관광지별로 특색있는 이벤트와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마련해 연휴기간 내내 관광지 곳곳에서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쉽과 힐링이 있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가래떡 굽기, 한방차 나누

기, 전통놀이, 입춘첩쓰기, 정원꽃피약국, 연날리기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였고, 추억이 묻어나는 드라마촬영장에서는 연만들기, 휘몰아치기 만들기, 민속놀이 등 체험행사 개최로 관광객들을 사로잡았다. 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낙안읍성에서는 설날 당일 무료입장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판소리, 가야금병창, 농악 등 국악한마당과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등 전통 민속놀이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하였고, 그 외에도 천년고찰 송광사와 선암사 등에도 가족, 친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는 방문객들이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설 연휴기간 완벽한 관광객 맛을 위해 설맞이 종합대책을 사전에 수립 연휴기간 동안 10개반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주요 관광시설인 숙박 및 음식점 등을 정비하고 관광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한 결과 관광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김승호 기자

## 제20회 구례산수유꽃축제 개막식 등 행사운영 달라진다

### 내달 16일부터 9일간 개최



구례군은 최근 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를 열고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산수유꽃축제는 병행한 행사를 찾아서 3월 9일 16일 18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산동면 지리산은전관광지와 산수유

군락지 마을일원에서 9일간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개막식은 의식행사를 간소화 하되, 20주년의 의미를 부여하여 산수유의 전래에서부터 시대별 테마로 구성하여 개막공연을 개최하기로 했다.

대표 프로그램인 '산수유 꽃길따라 봄미중하기' 코스를 개선하고, '산수유 떡 만들기 경연행사' 등 관광객이 참여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5개분야 43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주행사장 배치는 관람객들의 동선을 따라 집중 배치하고 축제장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일방통행 노선을 개편하는 한편 우회도로

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축제 홍보를 위해 산수유꽃 개화상황을 구례군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볼 수 있도록 하고, SNS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축제를 준비한다.

한편, 지난 1999년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은전관광지 일원에서 처음 개최한 구례산수유꽃축제는 전국 산수유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구례 산수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매년 3월 중에 개최해 오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 순천시, 걸으면서 기부하는 ‘건강동행 캠페인’ 추진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걸으면서 기부하는 ‘건강동행 캠페인’을 12월까지 추진한다.

‘건강동행캠페인’은 스마트폰 기부 앱 ‘빅워크’를 다운받아 어플을 켜고 100m를 걸으면 10원(10원은 1원으로 계산됨)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건강도 챙기고, 나눔도 실천할 수 있는 기부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순천시에서는 5천만(5백만)을 목표로 순천시와 함께하는 미숙아 가정돌봄 1차 모음통을 개설해 진행 중이다.

걸음을 나누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누적된 걸음 모금액은 지역단체에서 후원을 받아 나눔 주체에 따라 3차로 나누어 저소득 환우가정에 의료비로 전달할 예정이다.

순천시 보건사업과 양현심 과장

은 “사람 중심의 건강도시 운영을 위해 시민의 일상 속 건강생활권을 확보하고, 나눔을 통한 선진기부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보건소 보건사업과(061-749-6858)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양시, 남도바닷길 ‘웰니스 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서

### 2억 원 투자해 남도형 관광 상품 개발



광양시가 최근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웰니스(Wellness) 관광’ 분야의 입지 선점을 위해 여수·순천·보성과 함께 ‘남도형’ 관광 콘텐츠 개발에 본격 나섰다.

시는 최근 국제교류관에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바닷길 권역(광양·여수·순천·보성)의 ‘웰니스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제안공모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제안공모는 총 6개 학술·연구·컨설팅업체가 여행사 간 공동 도급을 통해 참여해 약 4시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으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뤄졌다.

시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2월 중 계약을 완료하고,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 함께 관광 상품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4개 시군이 각각 5천만 원씩 부담해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며, 광양시는 남도바닷길 권역의 사업 공동추진 협약에 따라 사업자 선정과 사업 관리·감독 등을 맡게 됐다.

용역기간은 총 6개월이며, 남도바

닷길 웰니스 관광 여건과 사업환경 분석, 관광상품 개발 등 학술·연구·컨설팅 분야는 3개월 동안 6천만 원으로, 관광상품 운영과 홍보 등 ‘관광상품 운영분야’는 3개월 동안 1억 4천만 원으로 각각 운영된다.

장성주 관광마케팅팀장은 “이번 용역은 4개 지자체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각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살려 특화된 콘텐츠 개발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이 알려진 곳보다는 숨어있는 웰니스 관광지를 찾아 남도바닷길 권역이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기대수명 증가와 만성질환 지속 등으로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려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추구하는 활동성 웰니스(Wellness) 관광 분야가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 함평군, 윈스톱 허기과 신설 민원신속처리

함평군이 ‘윈스톱 허기과’를 신설하며 민원행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2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일 조직개편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복합민원팀, 건축팀, 위생팀 등 총 3개 팀 19명으로 구성된 윈스톱 허기과를 신설했다.

민선 7기 주요공약사항인 윈스톱 허기과 설치의 인·허가 민원의 효율적인 이행과 민원서비스 주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신설된 윈스톱 허기과는

그동안 지역경제과, 전락경영과 등 개별 부서에서 나눠 처리하던 건축 인·허가, 농·산지 전용 인·허가, 개발행위 업무, 환경 업무 등을 전담하게 된다.

민원봉사과에서 관할하던 공중·식품위생 관리업무, 식품제조·가공·판매 업무 등 위생 관련 업무도 이관됐다.

함평=김광춘 기자

## 광양시, 강소농 교육생 모집

### 오는 22일까지

광양시는 농업을 선도할 2019년 강소농(強小農) 교육생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소농이란 미래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업농 이하의 중소규모

가축농을 말하며, 교육생으로 선정되면 경영개선 실천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경영진단·컨설팅, 자활 학습 모임체 활동 지원을 받게 된다.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강소농 교육은 월 2~3회(목요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전문 강

사를 초빙해 총 18회(100시간 이상) 이루어진다.

선정된 교육생은 △농업인이 알아야 할 세부 상식 △경영기록장 작성법 △온오프라인 공인마케팅전략 △농산업 아이디어 찾기&현장 벤치마킹 △농산물 소포장 실습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브랜드 개발 △강소농대전 참가 및 현장견학 등을 배우게 된다.

광양=김승호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점검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